

은천(隱泉) 송낙헌 선생님의 스텐 술잔

김 번

송낙헌 선생님이 관해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아놓고서 막상 이 글을 쓰는 나의 심정은 조심스럽다. 선생님과 사이에서 특별하게 기억하는 일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이 별로 없어서 글이 밋밋해질 것이라는 점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석사과정 때 지도를 받으며 시작해서 올 초 퇴임하실 때까지 근 15년을 선생님과 함께 지내온 셈이지만 선생님에 대해 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기 때문이다. 아마 이 점이 선생님의 한 특징이 될지도 모르겠다. 선생님은 좀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을 내세우기를 꺼리셨다. 학과나 학교의 공적인 행사에는 참석하시기를 꺼리셨고 특히 그 자리에서 선생님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한사코 마다 하신 걸로 안다. 영문과 학과장을 하실 때 선생님께서는 조교들이나 대학원 학생들이 추석이나 새해에 인사오는 것도 마다하셨다. 해서 나는 선생님택에 가본 적이 없고 선생님의 가정 사정도 잘 모른다. 나는 사모님을 선생님께서 정년퇴임하던 날 식당에서 그것도 먼 발치에서 처음 뵈었다.

선생님은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적이 적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겸손이 지나쳐 자기 비하처럼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한 예로 선생님은 자신은 영어 선생일 뿐 영문학 교수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물론 이 말씀은 다른 선생님들도 가끔씩 하실 터지만 선생님의 경우 그 무게는 남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을 심각하게 할 경우처럼 색다르게 다가왔다. 교수

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그를 통해 동료들과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속성을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선생님께서는 무슨 낙으로 “선생 노트”을 하는지 궁금해한 적도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을 포장, 전시하는 것을 싫어하셨고 특히 과대포장은 질색하셨던 것으로 보인다.

내가 대학에 자리를 얻기 전까지 선생님은 내가 찾아가면 입버릇처럼 취직 걱정을 하셨고 내가 취직 문제에 치열하게 매달리지 않는다고 책하곤 하셨는데, 그럴 때 나는 자식에게 “바담퐁”하고 말하면 안된다고 가르치는 부모를 대하는 듯한 묘한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난다. 내가 박사논문을 준비하느라 영국에 있을 때 선생님께 안부 엽서를 띄우면 선생님께선 꼬박꼬박 답장을 보내셔서 나의 학업을 따뜻하게 격려해주셨던 기억도 정겹게 떠오른다.

선생님은 약주를 좋아하셨다. 함께 선생님 지도를 받은 김문수 선배와 같이 선생님을 모시고 가끔 학교 밖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곁들일 때면 선생님께선 흥겨워하시고 평소와 달리 말씀도 많이 하시고 했다. 그런 자리를 파하고 헤어질 때면 선생님은 우리가 택시를 잡아드리겠다는 것을 마다 하시고 전철이 편하다면서 총총이 역 입구로 사라지셨다. 또 선생님은 등산을 좋아하셔서 혼자서도 자주 산을 찾는다고 들었다. 언젠가 선생님은 스텐 컵 하나를 보여주시며 그것이 당신께서 등산갈 때 꼭 챙겨가시는 술잔이라고 말하신 적이 있다. 그 스텐 컵을 배낭 뒤에 매달고 산을 오르는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잡히는 듯하다.

선생님께서는 18세기 영문학을 파고들어서 그런지 시대의 흐름을 잘 쫓아가는 쪽은 결코 아니라고 판단된다. 일본어가 익숙하게 몸에 배어서인지 책상 한 칸에는 일영사전이 놓여 있었고 서가엔 영문학 작품의 일어 번역본이나 해설집이 상당수 꽂혀 있었다. 선생님은 나중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셨지만 남들이 다 하는

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출퇴근 스쿨버스가 운행될 때까지는 그걸 모범생처럼 이용하셨다. 정년 퇴임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서 선생님에게 생긴 큰 변화 한 가지는 연구실에 언제나 묵향이 가득하고 습작하신 화선지가 널려 있던 점이었다. 아마 서예가 선생님의 기질이나 취향에 아주 잘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 내가 주례를 부탁드렸을 때 선생님은 마다 않으시고 멀리 울산까지 내려오셔서 직접 쓰신 글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족자에는 선생님의 아호 은천(隱泉)이 수줍은 들꽃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선생님을 생각하면 한 가지 송구스러운 게 있다. 물론 선생님께선 그러지 말라고 진짜처럼 말리셨지만 퇴임기념 논문집을 마련해 드리지 못한 것이 그것이다. 김문수 선배와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중도에 무산되고 만 것이 아직껏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송구스러운 것이 어찌 이것뿐일까. 퇴임하신 후로 찾아뵈지도 못했는데.

